宗 訓
1. 崇祖 精神의 高揚
2. 宗族 和睦의 勵行
3. 國家社會에 貢獻
順天金氏中央宗親會

順天金氏宗報

제48호 2006. 5. 15 (월)

順天金氏中央宗親會 발행/ 발행인 : 김종식/ 편집인 : 김봉환/ http://www.schkim.co.kr /138-839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01-11호 부광빌딩 2층/전화 : (02)400-2501~2502/FAX : (02)400-2505

春享大祭 奉行

봄꽃 향기 자욱한 주암골 始祖 墓域 구름처럼 모여든 順天金門 後裔들

順天 金門 春享大祭가 2006年 4月 3日 전남 順天市 住岩面 住岩里 始祖 墓域 同原齋 影堂에서 嚴肅히 擧行되었다

이날 서울을 비롯하여 경기,부산,대구,경북안동,충남금산, 전남해남등지에서 團體로 參席한 가운데 경북 안동에 東根종친이 執禮로 順金의 大宗孫인 충남 금산의 東澤 종친이 初獻官으로 서울 昌淵 종친이 亞獻官, 경북 안동에 鍾沃 종친이 終獻官, 충남 보령에 志燮 종친이 讀祝을 하였다. 한화구룹 升淵 會長은 弔花를보내 參禮를 대하였다

東澤 大宗孫을 비롯한 參席한 宗親들은 370萬원의 香料代를 보아 宗親會에 傳達하였다

여수 영취산 진달래 축제

靈鷲山神으로 顯靈하신 始祖府君

진례산 선황신이신 순천김씨 시조 김총 장군을 기리는 영취산 산신제 (헌작하는 김상용 상임 부회장)

그 옛날 우리 시조부군께서는 全羅道, 昇天(승천)에 나아가 外侵(외침)을 막아내고 민생(民生)을 편케 하시어 公 사후에 그 곳의 수호신인 성황신(城隍神)으로 받들어 千여년간 제향(祭享)을 올리다 나라가 일제치하(日帝治下)에 들어가게 되어 그후 중단되게 되었었다.

百여년이 지난 오늘날 麗水市에서는 옛날의 그 곳 수호신이던 우리 시조부군을 다시 영취산신(靈鷲山神)으로 모시고 해마다 제향(祭享)을 올리고 있으니 후손된 우리 어찌 감창(感愴)한 일이 아니겠는가.

사연인즉 麗水市에서는 十여년전부터 여수 시내에 자리한 "靈鷲山(前進禮山) 진달래 축제"를 해마다 한식절(寒食節)이면 여는데 먼저 진달래꽃이 온산을 분홍으로 물들인 영취산에 설단한 신단(神檀)에 우리 시조부군의 위패(位牌)를 모시고 혈식제(血食祭)로 생제수(生祭需)를 상석위 그득히 진설하고 市長이 제주(祭主)가 되어 시민의 안녕과 市발전을 기원하는 제례를 올린다. 그리고 이어서 기념식과 풍물 굿, 예술단공연, 방송국 축하쇼, 스포츠댄스 등의 행사가 수일간에 걸쳐서 이어진다고 한다.

금년에는 본회에도 초정이 있어 처음 알게 되었고 相容 상임 부회장, 學元 부회장, 明在 고문, 順天의 相福, 麗水의 根模 등이 참가하여 相容 부회장께서 아헌(亞獻)을 올렸으며 기념식에만 참석하고 일정(日程)상 귀환하였다. 올해로 14차의 행사라 하는데 우리로서는 너무 무심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자책의 마음 금할 수 없었다.

※ 이 靈鷲山은 그 옛날의 進禮山으로 당초에 백성들이 시조부군의 영정을 모시고 君 民이 향사하던 安官祠가 있던 山이라고 한다.

公告

2006年 丙戌年 順天金氏 第21回 大學生 敎養講座

❖목 적 : 순천김씨 자녀들로하여금 교양강좌를 통하여 숭조 애종 효친돈목 경로사상을 고취하는 보학을 주지시켜 명문화벌의 자녀로써 긍지를 갖게한다
❖강좌일시 : 2006년 6월 28일-6월 30일(2박3일)
❖입소장소 : 전남순천시 주암면 주암리 방축동 (동원재)
❖강 사 진 : 1) 종친(교수,법관,학자) 2) 외부(저명인사 초빙)
❖수강자격 : 순천김씨 남녀 대학생 및 동등학력 소지자
❖수강인원 : 40명
❖접수일자 : 2006년 6월 20일까지
❖접수방법 : 1) 개인 (서면 혹은 전화접수)
2) 단체 (지역종친회 혹은 파종회)
❖입 소 자 : 추후 개별 통지함
* 1) 모든 경비와 소모품은 종친회에서 부담함
2) 교양강좌 이수자에 한하여 장학생을 선발함

문의전화:(02)400-2501,2502 FAX(02) 400-2505

2006년 5월 15일 순천김씨 중앙종친회

節齋公 墓域 淨化事業

※ 經過報告

1. 2005년 時享(2005년 11월 2일 陰10월 1일)을 마치고 총회에서 安千宗親이 墓域 淨化事業의 必要性을 강조하고 이를 토의한 결과 2006년 봄에 착수하기로 가결하다.
2. 몇차례의 任員會議를 열어 각 門中별로 誠金을 염출하기로 결의하다.
3. 2006. 4. 27부터 着工하여 5. 7일 竣工式을 열기로 하다.
4. 2006년 5월 7일 竣工式은 많은 종친들과 外部 關係人事등 등 100여명이 모여 엄숙하게 거행하다.
5. 당일 행사 내역
   ① 절제공파종친회 총무 酉錫 종친의 사회로 준공식을 선언하다.
   ② 절제공파 貞錫 회장의 人事말이 있었다.
   ③ 酉錫 총무의 경과 보고가 있었음.
   ④ 節齋公派 宗員 一同으로 鍾植 中央宗親會 會長에게 감사의 膳物(행운의 열쇠)을 증정했다. 學元 持平公派會長과 貞錫 節齋公派 會長에게 會員 一同의 이름으로 이번 淨化事業의 추진에 대한 감사패를 증정했다.
6. 이서 절제공조의 묘에 제사의 행사를 마쳤다.
7. 절제공조 墓下에 長子인 承珪祖, 孫子, 曾孫, 高孫의 祭壇을 設壇하여 被禍后 553년만에 처음으로 祭禮를 올리게 되었다. 子孫들로서 송구하고 죄송하게 여겨오다 이제야 뜻을 모아 헌성금으로 設壇하게 되었으니 송구스럽고 감개가 무량하였다.
8. 이상으로 行事를 마치고 식당에서 中食을 하고 해산하고 앞으로는 子孫으로서 할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 墓碑

▲ 神道碑

행운의 열쇠 증정

오늘 節齋公祖의 墓域淨化事業의 竣工을 告하는 이 자리에서 中央宗親會 會長이시고 十三代 國會議員을 歷任하신 鍾植 會長에게 우리 節齋公派 宗親會 會員들의 감사의 뜻을 전달하는 膳物(행운의 열쇠) 贈呈을 하겠습니다.

會長께서는 첫째 二00三年에 節齋公祖의 訒傳 "꺼질 것이 없어라"라는 책 1萬卷을 發刊토록 하시어 우리 中始祖 할아버지의 位相을 全國的으로 다시 높여 주셨으며 둘째 우리 二世祖 裕孚 할아버지부터 19世祖 煜字 할아버지까지의 祖上님들을 順天 始祖 墓下에 祭壇을 設壇하고 每年 時享을 올리도록 해 주셨고 셋째 2005年度 大同譜를 發刊하셨고 그동안에 우리 順天金門의 宿題였던 系代確立으로 형님, 동생, 아저씨, 조카, 할아버지, 손자 이렇게 呼稱을 가능케 하여 順天 全體의 和合 단결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會員 一同은 감사의 뜻으로 약소하나마 이 膳物을 드립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고 뜻 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가내에 安寧과 平安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2006年 5月 7日

順天金氏 節齋公派 宗親會 會長 貞錫

子女敎育과 兄弟愛

0朝鮮時代 最大 人文地理書라고 할 수 있는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실린 글이다. 高麗時代 恭愍王 때 京畿道 陽川縣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두 兄弟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 금덩어린가 동생이 먼저 금덩어리 2개를 發見했다. 동생은 큰 고민 없이 금덩어리를 형과 하나씩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들 형제는 빨리 집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다.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강만 건너면 漢陽땅을 밟게 된다. 곰곰이 무엇 인가를 생각하던 동생은 갑자기 가지고 있던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지는게 아닌가. 형이 깜짝 놀라 동생에게 緣由를 물었다. 동생의 대답은 이랬다. "형님 죄송합니다. 금덩어리 하나를 손에 쥐고 보니 하나 더 갖고 싶은 慾心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형님이 미워지기 시작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있던 형님도 동생에게서 받은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져 버렸다. "아우야 미안하다. 나 역시 금덩어리 때문에 平常心이 흔들리더구나, 이까짓 금덩어리가 兄弟愛 보다 중요 하겠는가"

兄弟愛는 예나 지금이나 心琴을 울린다. 강제규 감독의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원빈과 장동건의 兄弟愛는 映畵의 極致였다. 그 어떤 이데올로기도 兄弟愛 앞에선 물거품이 되고 만다. 兄弟愛를 다룬 藝術作品이 어디 이 作品 뿐 이겠는가 프랑스 혁명에서도 兄弟愛는 自由와 平等에 이어 3기치였다. 兄弟愛는 文學作品의 단골 메뉴나 다름없다. 시인 박목월의 下棺이란 시를 보면 아우의 죽음을 놓고 슬퍼하는 형의 슬픔을 뼈속 깊게 느끼게 한다. 너는 어디로 갔는가. 그 어질고 안쓰럽고 다정한 눈짓을 하고 형님 부르는 목소리는 들리는데 네 목소리는 미치지 못하는 다만 여기는 열매가 떨어지면 툭 하고 소리가 들리는 세상!

요즘 들어 兄弟愛를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는데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형제의 난이 많기 때문일까, 언젠가 兄弟愛가 종기로 소문난 모 재벌 구룹에서 형과 동생이 經營權을 놓고 誹謗戰과 訴訟을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돈이 뭐길래" 하며 혀를 찬다. 주위에서도 형제간에 法廷 싸움을 벌이며 兄弟愛는 커녕 怨讐처럼 지내는 사람들을 자주 目擊하게 된다.

모두 돈 때문에 벌어지는 싸움이다. 相續되는 財産이 많을수록 兄弟間에 反目은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부모들은 오직 자식 사랑뿐이다. 유독 한국 부모들은 변변한 옷 한 벌 사 입지 못하면서도 돈을 모아 자식에게 물려주길 원한다. 그러나 결과는 어떤가. 幸福해지길 바라는 마음과는 달리 相續 때문에 兄弟끼리 다투고 심지어 살인 까지도 벌인다. 진정 자식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남겨야할까.

"고기 잡는 방법을 자식에게 물려 주는게 가장 좋은 相續 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부모들의 심정 한 구석엔 돈 대신 敎育이란 고기 잡는 방법을 贈與하고 싶은 생각이 깔려 있을 것 같다.

혹시나 나는 어떤가, 자녀들에게 형제애 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敎育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宗財로 宗親間에 다툼이 있었는지 뒤돌아 보게 된다.

중앙종친회 相容 상임부회장

釜山宗親會 三相祠 參拜記

丙戌 三月二十六日 全南 海南郡 溪谷面 芳春書院을 探訪하였다.

本 芳春書院은 朝鮮 正祖八年(1784) 甲辰에 鄕道儒林의 建議로 創建하여 月潭公과 節齋公과 北渚公을 모시고 芳春祠라 이름하다.

* 宣祖八年(1808) 戊辰에 三相祠라 改稱하여 오다
* 高宗五年(1868) 戊辰에 朝令에 依하여 毁撤되었고
* 光武五年(1901) 癸卯에 鄕道儒林의 建議로 南隱公 할아버지를 追配 檀祀로 모시어 오다.
* 民國 77年(1995) 乙亥 鄕道儒林의 建議로 望美堂 孝孫 할아버지를 追配하여 五賢을 모시어 享祀하고 있다.
* 우리 一行은 正午에 五賢位前에 參拜告由祝을 다음과 같이 讀祝하였다.

" 丙戌三月丁巳朔二十六日壬午에 后孫 炳箕이 告하나이다.

顯 大匡輔國 崇錄 大夫 議政府 左議政 襄景公 府君
顯 大匡輔國 崇錄 大夫 議政府 左議政 忠翼公 府君
顯 大匡輔國 崇錄 大夫 議政府 領議政 文忠公 府君
顯 通政大夫 潭陽 都護府使 南隱公 府君
顯 成均館 進士 望美堂公 府君 .....

엎드려 생각하온데 그 옛날 할아버님들의 빛나는 勳業과 베푸신 德業은 우리 順天金門을 名門으로 이룩하셨지요. 欽慕의 情이 懇切하옵니다. 크나큰 蔭德을 입고 있는 저의들은 後孫된 道理를 못 다하고 있어 慙愧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今日에야 저의 釜山 宗親會 後孫들 이곳 三相祠를 奉審하여 恭敬히 焚香하고 酒果 를 올리오니 歆饗하옵소서."

고유를 마치고 芳春亭에서 二十六次 定期總會를 嚴肅히 마쳤는데 都有司 正泰氏의 祝辭와 內賓 在熙氏의 激勵辭로 高調된 雰圍氣 속에 和氣 애애하게 行事를 마쳤다.

그리고 一行은 땅 끝 마을을 觀光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歸家 길에 올랐다.

金仁燮 記

▶ 改選된 任員

會長 金仁燮, 副會長 金樂熙, 副會長 金成福, 副會長 金聲國, 總務 金炳摸
監事 金東玉, 監事 金亨先

金昌淵 先生 頌德碑 除幕

順天金氏 中央宗親會가 主管한 金昌淵 先生 頌德碑 除幕式이 2006年 2月 12日 경북 성주시 하서면 판곡 2리에서 擧行하였다.

이날 행사는 中央宗親會와 安東九潭門中, 大邱 등지에서 관광버스를 貸切하여온 100여 名의 宗親들과 京鄕各地에서 온 外部內賓들을 모시고 嚴肅하고 莊嚴하게 開幕하였다.

慶祝 懸垂幕이 펄럭이고 祝賀 花環이 울타리를 친 가운데 式順에 따라 鳳煥 幹事長의 開式辭에 이어 默念, 經過報告, 鍾植 中央宗親會長의 人事말, 持平公派 學元 會長과 安東宗親會 철우 會長의 祝辭와 相容 中央宗親會 常任副會長의 略史報告에 이어 家族을 代表하여 수호 宗親이 家族 答辭를 한 후 頌德碑 除幕과 記念撮影을 하고 閉會하였다.

이날 參席한 분들에게는 膳物과 食事를 待接하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金一封을 傳하고 鄭重히 인사하였다.

入口 標識石碑를 墓域進入路邊에 建立하는 一大盛事를 하여 門中은 물론 世人의 稱頌을 받기도 하였다.

그 뿐인가. 公은 우리 族譜를 閱覽하고 閱覽하고 遺憾스러운 일이 있다면서 "尨大한 族譜를 後生들이 어찌 잘 보겠는가"라고 하며 우리 先祖들의 빛나는 世蹟을 더 간추려서 한권의 책으로 엮어 發刊하였는데 自身이 發行委員長이 되어 推進하고 이 費用 역시 公이 全擔하였으니 이 어찌 壯快한 일이 아닌가.

젊어서 奔忙한 生活에 쫓기어 爲先事에 關與하지 못했던 일을 뉘우침인지 老境에 들은 그는 아직도 해야할 爲先事가 많다고까지 하며 意慾的인 心境을 말하는 그 崇祖精神은 모든 宗親의 龜鑑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하겠다.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 祖上이 있었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더구나 先祖들의 勳功과 德業으로 우리는 名門의 後裔로 살고 있으니 그 陰德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항상 報本의 精神과 行動으로 生을 營爲하는 것이 萬物의 靈長으로서의 道理일 것이다. 위와 같이 祖上에 대한 道理를 다하고 있는 處士 昌淵 宗親의 功德을 기리기 위하여 山을 좋아하는 公이기에 山氣 뚜렷하고 陽氣 흐르는 이 동모산 福地에 功德碑를 세우다.

丙戌(2006) 正月 仲澣 德岩 金明在 쓰고
順天金氏 中央宗親會 세움

處士 順天金公 昌淵 頌德碑

송덕비문

處士 金昌淵 그는 順天金氏로 그 옛날 이 順天地域을 侵犯하여 暴惡한 擄掠질을 일삼는 外寇를 물리치고 百姓을 寬厚하게 이끌어 死後에는 이 地域의 守護神인 城隍神으로 받들어 天余年間 配享한 金將軍 諱 摠을 始祖로 모시는 家門의 後裔이다. 朝鮮朝 太宗임금 代에 功名을 떨친 平陽府院君 金承주 將軍이 18代祖가 되시고 世宗임금 代에 北쪽의 六鎭을 開拓한 節齋 金宗瑞 相公과 仁祖 임금 代의 功臣 北渚 金　相公은 公의 芳祖가 되신다.

公은 尙州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向學熱에 불타 빈손으로 上京하여 東家食西家宿 하면서 啓明學院에 就學하여 學究에 熱中하는 한편 職場을 求하여 피나는 고생 끝에 1943年 待望의 卒業狀을 받게 되었었다. 그러나 그의 處地는 進學을 抛棄하게 하였고 1945年 解放을 맞아 歡喜의 소용돌이 渦中에서 美8軍 司令部에 補職을 받아 韓國人으로서의 矜持와 順天金門의 一員으로서의 自負心으로 忍耐와 成實로 職務에 充實하였고 6.25動亂을 겪으면서 生死의 境地를 수없이 겪었으며 美 제5空 軍司令官의 功勳指環을 받기까지 하였다. 또한 國際聯合의 韓國復興委員會에 所屬되어 厚生事業에 參與하여서는 國益을 위해 있는 정성을 다 받쳤으니 숨은 愛國者이기도 하다. 公職에서 나와 個人事業을 營爲하면서는 儉約과 勤勉을 信條로 거친 世波를 이겨냈고 한편 山嶽人으로 金剛山 白頭山 등 國內 名山은 물론 日本의 富士山도 征服하는 등 強靭하고 實踐的인 心身의 所有者이기도 하다.

公은 老境에 들면서 일만 알던 自身의 過去를 懷古하여서인지 宗門의 20余人의 學生을 공부시켰고 崇祖意識의 發露로 頹落한 여러 先祖墓域을 復元하고 淨化하였는가 하면 17代祖이신 菊潭公(諱 有溫) 二下 15位 先祖들의 位牌를 모실 수 있는 位牌室을 建立하여 모든 後生들을 感動케 하기도 하였다. 그뿐 아니라 他宗派의 爲先事에도 精誠어린 獻誠도 하여 稱頌이 藉藉하였다.

한편 中央宗親會의 元老顧問으로서 順天市에서 設置한 始祖墓域入口 案內板을 보고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높이 6m나 되는 巨大한 始祖墓域

✻ 訂 正

1면가운데 : 듫린자- 듫린다
7면增訂-訂正

✻ 動 靜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475번지 아비코아 생명공학연구소 소장 김진남 종친은 2006년 2월 24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농업생명공학부)을 이수하고 농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千年 古都 慶州에 慶祥公(諱 萬圭) 功德碑 竪立

경상북도 경주시(월성군) 陽南面 水念理 觀星마을은 吾 順天金氏가 代代로 살아온 集成村이다. 5~60年 前에는 50여 家口가 울산, 부산, 경주, 대구 등에 흩어져, 지금은 10여 家口만 살고 있다.

橫城公派로 嶺南一圓은 300여 家口의 國內最大 世居地로 알려진다.

吐含山 精氣가 靜脈으로 이어져, 맑고 푸른 東海를 안고, 松林과 竹林의 아름다운 이곳은 어머니의 따뜻한 품과 같은 우리들의 唯一한 故鄕이다.

2001年(辛巳)夏에는 派祖의 7代孫 鍊珊 號 海隱公을 되신 東隱齋 重建時, 失墓된 先 6代祖의 祭壇碑를 세워 後孫의 崇慕精神을 일깨우고 있는 模範的인 典當이다.

또한 2005年(乙酉) 秋에는 14代孫 萬圭 號 慶祥公(1889~1982)의 功德碑를 세워 그 功德을 後孫에 알리고 있다.

全門中의 熱意와 聲援으로 세워진 이 碑文을 紹介하면

이곳 胎生인 公은 靑年時節 日本에서 土木業으로 功德, 歸鄕후 私財로 數次에 걸쳐 林野와 田畓을 買入, 喜捨하여 오늘날에는 우리 門中 運營의 母胎이다.

특히 刮目할 業績은 吾 橫城公派孫이 大同譜에 漏落되고, 이를 痛恨하시던 중 몇 년간의 調査로 敎旨와 家承을 作成, 提出하여 1957년 丁酉譜에 立譜하여 우리의 뿌리는 名門 忠孝族임을 알려 自矜心을 鼓吹하였고, 또 後孫들이 故鄕을 찾을 시 祭를 올리고 마음 合할 場所가 없어 안타깝게 생각하시던 중 私財로 東隱齋를 創建하고, 懸板하시여 오늘에는 祭와 討論의 장소이다.

또한 公의 末年은 家財가 어려웠음에도 不拘, 人材 育成이 吾金 繁榮의 捷徑임을 自覺하시고 國內 有數大學 入學生에게 奬學金을 支給, 우리의 나아갈 길이 育英임을 實踐으로 보여 주셨다.

우리의 뿌리는 튼튼하고, 血統은 깊이가 無限, 도도히 흐르고 있음을 이 곳에서 보고 있다.

그 實例를 여기에 소개 드리어, 우리 후손들의 心標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다.

15代 商重 識

참의공 묘소에 관하여 -양경공파 후손등에게 告함-

예천군 호명면 갈천리 국담 선조님. 휘(유온)의 묘소가 550여년이 된 듯하다. 이곳 갈천의 청룡등에는 묘하에 판사공. 휘(원석) 그 아래 송음공 휘(윤사) 그 뒤에 조창공 휘(자순) 등, 여러 선조님이 잠들어 계시다. 지금은 애석하게도 이곳이 타인의 명의로 넘어가 버린지 오래되었다.

630여만원의 세금 체납으로 이곳이 공매 처분되면서 지주가 두 번이나 바뀌어 있는 실정이다. 저간의 사정이야 후손된 자, 거의 아는 사실이지만 객지에서 생활하는 후손 대부분은 이런 내력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리라 사료된다.

우리 씨족의 최대 집성촌으로 600여년 세거해오면서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실로 통탄을 금할 길 없다.

2004년 국담정사 수리를 시작으로 선조님들의 위패실까지 마련하여 종중으로서의 위상은 어는 정도 회복하였지만 종증산 회복을 지금껏 못하고 있어 전국 각지에서 2005년 국담공 가을시제 및 위패 봉안식에 참석한 후손들이 뜻을 모아 산을 되 찾자는 결의를 하고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십시일반 후손된 자 자발적 참여만이 문중의 단합과 그동안 반목과 갈등을 치유할 것이라 믿습니다. 모두 참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2006년 초하

추진위원장 (문경) 김도연
위 원 (안동) 김오현
위 원 김덕수
위 원 김병덕
위 원 (구담) 김동성
위 원 (구담) 김동석
위 원 (구담) 김윤환

祝
開 院

뉴욕 BNS 치과

대표 원장 김동근, 원장 김수진

서울 구로구 구로동 212-8 대륭포스트타워 1, 2층
전화 : (02) 856-2785 FAX : (02)856-2876
H. P : 010-4809-2875 E-mail : JDDBB2875@KOREA.COM

안녕하셨습니까?

順天金氏 中央宗親會의 無窮한 發展을 祈願합니다.

일가들의 뜨거운 聲援에 힘입어 저희 夫婦가 美國 齒科 專門醫 過程을 履修하고 再 開院하였습니다.

그동안 一家들로부터 입은 恩惠 健康한 齒牙로 報答하겠습니다.

김동근 김수진(節齋公14世孫) 夫婦 올림

安東 宗親會

定期 총회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 국담 정사에서 2006년 안동 종친회 정기 총회가 2006년3월1일 200여 종친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그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집행부의 열정으로 위패실 마련까지 달리진 모습에 모두들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갑자기 찾아온 한파로 무척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향유 대책까지 논하고 화기 애애한 가운데 앞으로 2년동안 종친회를 이끌 새 집행부 구성에 이구동성 현 철우 회장을 다시 추대하여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였다.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장 : 김철우 ▷ 부회장: 김해동. 김병덕, 김윤환, 김인재, 김상인

▷ 감사 : 김동석, 김오현 ▷ 총무 : 김동득, 김창섭

부녀회 윷놀이

안동 종친회 부녀회, 회원 70여명은 새로 말끔히 단장된 국담 정사에서 정월 보름 친목을 다지는 윷놀이 대회를 열었다.

타 문중 행사는 물론 우리 종친회 대 소사에 빠짐없이 나서서 안동지역, 타문중으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있다. 날씨도 사납고 이 지역은 특작을 많이 하므로 일손이 나쁘지만 모두 나와 친목을 다지며 명절을 명절답게 하루를 즐겁게 보냈다.

節齋公 墓域參拜

지난 3월27일 우리 順天金門의 最大 集成村인 慶北 安東地域 宗親會 婦女會員을 주축으로 56명이 버스와 봉고 등으로 中始祖 墓域 巡禮에 나섰다

서울 청계산 입구 우리 金門의 昌淵옹이 경영하는 옛골 토성에 들러 푸짐한 午餐을 대접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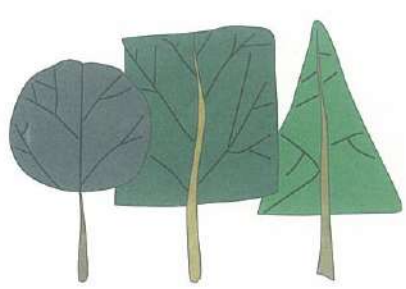
中央 宗親會 會長(鍾植) 을 비롯한 임원진 들의 환영을 받으며 이곳저곳 昌淵옹의 설명과 함께 일행은 기념 촬영을 하고 아쉬운 발길을 忠南 錦山으로 옮겼다. 學元 節齋公派 會長의 配慮로 현지에 살고 있는 기현 宗親이 조치원까지 마중을 나와 주었다.

많은 宗親이 이곳 節齋公 墓域 參拜는 처음이라서 그 어느 때보다 뜻 깊은 자리였다.

한 나라의 宰相이요 大虎라고불리우신 忠臣 節齋公의 功勳에 비해 墓域은 매우 초라하였다. 聖域化 된 다른 묘역보다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감정을 참석자 모두 뼈저리게 느끼면서 아쉬운 발길을 돌렸다.

이 곳 參拜를 위해 서울에서 合流한 조정자님, 그리고 멀리 大邱에서 하루 일정을 함께 해주신 동균(前嶺南 宗親會長)을 비롯한 경도, 동영, 규일, 진, 등 종친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이제 우리 後孫 모두는 전국에 산재해있는 묘역, 정자, 제사 등, 틈틈이 시간을 내어 탐방, 참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회비 입금 현황(인명부록)

2006년 2월 ~ 2006년 4월 31일

간 사

1. 김광홍 2006.2.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 문

1. 김달현 2006. 2. 28 서울특별시 강남구
2. 김채원 2006. 3.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3. 김창연 2006. 3.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의원

1. 김한경 2006. 3. 13 전라남도 해남군
2. 김상대 2006. 3. 3 전라남도 해남군
3. 김동선 2006. 3. 7 경기도 이천시
4. 김대석 2006. 2.28 충청남도 보령시
5. 김정웅 2006. 3. 21 경상북도 경주시
6. 김태수 2006. 3. 23 전라북도 전주시
7. 김광주 2006. 3. 28 전라북도 전주시
8. 김오현 2006. 4. 6 경상북도 안동시
9. 김애연 2006. 3. 29 경기도 고양시

부회장

1. 김행엽 2006. 2.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운영위원

1. 김학순 2006. 3. 16 전라남도 순천시
2. 김상욱 2006. 2. 23 광주광역시 동구
3. 김귀순 2006. 4. 7 서울특별시 방배동

이 사

1. 김동원 2006. 3. 6 충남 금산군
2. 김상석 2006. 2. 10 경기도 광주시
3. 김상우 2006. 3. 6 경기도 용인시
4. 김동영 2006. 3. 2 대구광역시 달서구
5. 김기연 2006. 3. 2 충청북도 청주시
6. 김구연 2006. 2. 28 서울특별시 강서구
7. 김상윤 2006. 3. 3 전라남도 해남군
8. 김상묵 2006. 2. 28 전라남도 해남군
9. 김기원 2006. 2. 28 충청남도 공주시
10. 김광수 2006. 2. 27 대구광역시 서구
11. 김영규(규남) 2006. 3. 16 경기도 안산시
12. 김광영 2006. 3. 17 경상북도 문경시

회 원

1. 김상진 2006. 2. 27 서울특별시 금천구
2. 김동은 2006. 2. 2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3. 김상열 2006. 2. 27 경상남도 김해시
4. 김병남 2006. 2. 27 경기도 김포시
5. 김수광 2006. 2. 28 인천광역시 남동구
6. 김동섭 2006. 2. 28 서울특별시 관악구
7. 김영근 2006. 2. 28 서울특별시 양천구
8. 김병도 2006. 2. 28 인천광역시 서구
9. 김갑연 2006. 2. 27 전라북도 진안군
10. 김해용 2006. 2. 28 대전광역시 서구
11. 김영복 2006. 2. 27 충청남도 금산구
12. 김재명 2006. 2. 27 제주도 서귀포시
13. 김길옥 2006. 2. 28 서울특별시 관악구
14. 김기수 2006. 2. 28 경기도 남양주시
15. 김동희 2006. 2. 28 서울특별시 은평구
16. 김기정 2006. 2. 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7. 김중희 2006. 2. 28 광주광역시 서구
18. 김필수 2006. 2. 28 인천광역시 강화구
19. 김목희 2006. 2. 28 경상북도 경산시
20. 김석희 2006. 2. 28 대구광역시 남구
21. 김상희 2006. 2. 28 광주광역시 동구
22. 김영일 2006. 2. 28 전라북도 정읍시
23. 김인흠 2006. 2. 28 경상북도 영주시
24. 김주락 2006. 2. 28 울산 광역시 중구
25. 김정희 2006. 3. 2 서울특별시 강서구
26. 김태연 2006. 2. 28 경기도 광주
27. 김동근 2006. 3. 2 경기도 시흥시
28. 김학주 2006. 3. 2 경기도 남양주시
29. 김영관 2006. 2. 28 충청북도 괴산군
30. 김병현 2006. 2. 28 전라남도 영암군
31. 김용학 2006. 2. 28 울산광역시 중구
32. 김동수 2006. 2. 28 경상북도 안동
33. 김동웅 2006. 3. 2 대구광역시 달서구
34. 김윤근 2006. 3. 2 충청남도 예산군
35. 김영윤 2006. 3. 2 전라남도 해남군
36. 김종두 2006. 3. 2 전라남도 여수시
37. 김해재 2006. 3. 2 경상남도 마산시
38. 김순철 2006. 3. 3 경기도 안양시
39. 김상일 2006. 3. 3 경기도 고양시
40. 김동필 2006. 3. 3 서울특별시 서초구
41. 김석연 2006. 3. 3 인천광역시 여수구
42. 김교남 2006. 3. 3 대전광역시 대덕구
43. 김형호 2006. 3. 3 경기도 안산시
44. 김현수 2006. 3. 3 전라북도 정읍시
45. 김승환 2006. 2. 28 경상북도 상주시
46. 김준일 2006. 3. 3 경기도 남양주시
47. 김윤배 2006. 2. 28 전라남도 해남군
48. 김구연 2006. 3. 2 대구광역시 달성군
49. 김원주 2006. 3. 2 강원도 정선군
50. 김종훤 2006. 3. 6 서울특별시 도봉구
51. 김상균 2006. 3. 6 경기도 남양주시
52. 김병욱 2006. 3. 6 서울특별시 마포구
53. 김학연 2006. 3. 2 경상북도 문경시
54. 김동신 2006. 3. 6 경기도 용인시
55. 김희흔 2006. 3. 7 서울특별시 송파구
56. 김웅열 2006. 3. 7 서울특별시 성동구
57. 김이연 2006. 3. 6 경기도 용인시
58. 김윤택 2006. 3. 3 전라남도 담양군
59. 김광석 2006. 3. 6 전라남도 무안군
60. 김옥계 2006. 3. 6 경상남도 하동군
61. 김득수 2006. 3. 7 대구광역시 북구
62. 김재석 2006. 3. 7 광주광역시 서구
63. 김성남 2006. 3. 7 전라북도 익산시
64. 김천은 2006. 3. 8 서울특별시 강남구
65. 김중근 2006. 3. 8 서울특별시 성북구
66. 김상준 2006. 3. 8 대전광역시 서구
67. 김덕흠 2006. 3. 8 경기도 의정부시
68. 김창길 2006. 3. 6 전라북도 부안군
69. 김흥배 2006. 3. 7 인천광역시 남구
70. 김동인 2006. 3. 6 경상북도 문경시
71. 김지연 2006. 3. 7 경상북도 안동시
72. 김성근 2006. 3. 8 서울특별시 가양동
73. 김상심 2006. 3. 9 경기도 고양시
74. 김만형 2006. 3. 9 서울특별시 영등포
75. 김세덕 2006. 3. 9 인천광역시 부평구
76. 김동언 2006. 3. 7 전라북도 임실군
77. 김영환 2006. 3. 7 전라북도 정읍
78. 김인희 2006. 3.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79. 김송수 2006. 3. 10 인천광역시 남구
80. 김주호 2006. 3. 10 강원도 춘천시
81. 김길원 2006. 3. 9 충청남도 서산시
82. 김상만 2006. 3. 9 전라남도 해남군
83. 김영희 2006. 3. 9 부산광역시 금정구
84. 김영원 2006. 3. 10 전라북도 익산
85. 김수호 2006. 3.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86. 김종탁 2006. 3.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87. 김용득 2006. 3. 9 전라남도 나주시
88. 김정학 2006. 3. 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89. 김동진 2006. 3. 13 전라북도 덕진구
90. 김중건 2006. 3. 14 경기도 광명시
91. 김이병 2006. 3. 14 경기도 고양시
92. 김평년 2006. 3. 10 전라북도 진안군
93. 김규수 2006. 3. 10 전라남도 해남군
94. 김진출 2006. 3. 14 경기도 안산시
95. 김순희 2006. 3. 14 강원도 철원군
96. 김동찬 2006. 3.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97. 김종환 2006. 3. 15 경기도 안성시
98. 김명환 2006. 3. 14 충청남도 부여군
99. 김철환 2006. 3. 17 서울특별시 강서구
100. 김염섭 2006. 3. 20 서울특별시 은평구
101. 김재용 2006. 3. 20 경기도 성남시
102. 김경철 2006. 3. 17 전라남도 강진군
103. 김동석 2006. 3. 20 경기도 김포군
104. 김영수 2006. 3. 17 경상북도 성주군
105. 김용환 2006. 3. 22 강원도 원주시
106. 김연수 2006. 3. 22 인천광역시 부산진구
107. 김천연 2006. 3. 22 울산광역시 중구
108. 김동한 2006. 3. 22 경기도 용인시
109. 김상하 2006. 3. 23 경기도 평택시
110. 김동성 2006. 3. 23 서울특별시 동작구
111. 김 진 2006. 3. 23 대구광역시 북구
113. 김두진 2006. 3. 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14. 김봉원 2006. 3. 24 대구광역시 달서구
115. 김방석 2006. 3. 24 광주광역시 서구
116. 김성희 2006. 3. 27 서울특별시 종로
117. 김명환 2006. 3. 27 서울특별시 강서구
118. 김만조 2006. 3. 24 대구광역시 서구
119. 김준섭 2006. 3. 27 서울특별시 용산구
120. 김갑점 2006. 3. 27 부산광역시 서구
121. 김영순 2006. 3. 27 강원도 철원군
122. 김태석 2006. 3. 27 충청남도 보령시
123. 김중식 2006. 3. 2 경기도 남양주시
124. 김상천 2006. 3. 27 경기도 안성시
125. 김종락 2006. 3. 28 강원도 이천시
126. 김태희 2006. 3. 27 전라남도 순천시
127. 김길원 2006. 3. 28 광주광역시 동구
128. 김학이 2006. 3. 27 경상북도 의성군
129. 김동운 2006. 3. 27 경상북도 문경시
130. 김종식 2006. 3. 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31. 김욱재 2006. 3. 30 서울특별시 중랑구
132. 김이균 2006. 3. 30 서울특별시 서초구
133. 김지현 2006. 3. 28 경상북도 문경시
134. 김상민 2006. 3. 30 서울특별시 대림동
135. 김세환 2006. 3. 29 충청남도 보령시
136. 김원남 2006. 3. 29 강원도 평창
137. 김용희 2006. 3. 29 서울특별시 송파구
138. 김기석 2006. 3. 31 서울특별시 금천구
139. 김지호 2006. 3. 31 서울특별시 용산구
140. 김성일 2006. 3. 31 경기도 군포
141. 김창주 2006. 3. 31 경기도 두정
142. 김동호 2006. 3. 31 충청북도 청주시
143. 김홍인 2006. 3. 31 대구광역시 동구
144. 김재수 2006. 3. 31 전라북도 전주시
145. 김상수 2006. 3. 31 전라남도 해남군
146. 김원재 2006. 4. 3 서울특별시 마포구
147. 김동주 2006. 3. 31 경상남도 안산시
148. 김상욱 2006. 4. 4 경기도 고양시
149. 김춘연 2006. 4. 5 경기도 양주시
150. 김동열 2006. 4. 6 경기도 이천시
151. 김형식 2006. 4. 4 충청남도 부여군
152. 김영환 2006. 4. 4 경상북도 문경시
153. 김순환 2006. 4. 11 경상남도 마산시
154. 김원석 2006. 4. 10 광주광역시 북구
155. 김광연 2006. 4. 10 충청북도 영동군
156. 김판영 2006. 4. 7 전라남도 담양군
157. 김용옥 2006. 4. 7 전라북도 완주군
158. 김귀영 2006. 4. 13 전라북도 전주시
159. 김영환 2006. 4. 14 경기도 용인시
160. 김윤일 2006. 4.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161. 김철수 2006. 4.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162. 김성환 2006. 4. 14 정북 영천시
163. 김낙희 2006. 4. 14 부산광역시 동구
164. 김안석 2006. 4. 21 전라남도 해남군
165. 김동직 2006. 4. 25 서울특별시 양천구
166. 김선원 2006. 4. 25 대구광역시 수성구
167. 김왕희 2006. 4. 25 울산광역시 남구
168. 김주운 2006. 4. 26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기재

김두연 2006. 1. 25 경북 상주시

무명인

2006년02월~04년04월31까지 회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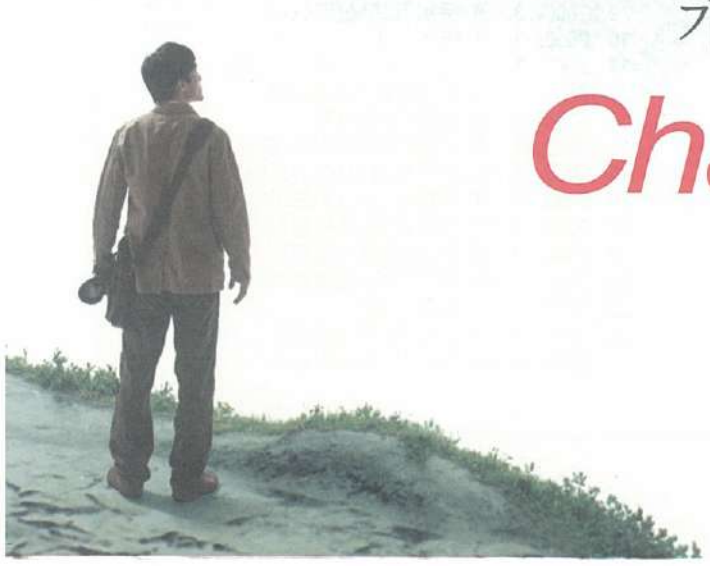
1. 2006. 2. 22 대구은행/ 장기동 지점
2. 2006. 2. 28 국민은행/서현지점
3. 2006. 2. 28 새마을금고/간석지점
4. 2006. 2. 28 우리은행/인천전문대
5. 2006. 3. 3 조흥은행/소공동지점
6. 2006. 3. 2 농협/해남군지부
7. 2006. 3. 3 신갈농협/서천지점
8. 2006. 3. 6 고양덕업
9. 2006. 3. 6 우체국/부산대현4동
10. 2006. 3. 7 병영농협
11. 2006. 3. 8 새마을금고/덕포동지점
12. 2006. 3. 9 구성농협/연원지점
13. 2006. 3. 15 농협/남천지점
14. 2006. 3. 15 국민은행/중앙로 지점
15. 2006. 3. 16 새마을금고/경기도의왕지점
16. 2006. 3. 17 축협농협/경기도파주지점
17. 2006. 3. 27 진량농협/경북경산시진량읍지점
18. 2006. 3. 29 농협/문경시청지점
19. 2006. 3. 30 외환은행/연희동지점
20. 2006. 3. 31 농협/학산
21. 2006. 4. 7 인천측산계산농협
22. 2006. 4. 18 농협/부산대학병원

용기에 대하여...

모험을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 있는 사람만이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능성, 그것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Change the Life!



Korea Life
대한생명